

“찍는 순간 인생샷”...정읍시, 관광명소에 감성 담는다

구절초 지방정원·무성서원·김명관 고택 등 11곳서 사진 촬영 관광자원 활용 감성 이미지 콘텐츠 개발...MZ 유치 위해 노력

정읍시가 단순한 사진이 아닌 관광객을 움직이게 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정읍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정읍시는 정읍 관광명소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성 이미지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성 이미지 콘텐츠의 핵심은 인물과 체험 중심의 감성 콘텐츠다.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수상한 사진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여행 수요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인생샷'을 원하는 세대에 작가 관점이 아

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를 제시, 그들에게 욕구를 자극해 신규 여행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달 초 정읍의 가을 감성을 담은 사진 촬영을 마쳤다. 지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촬영장소는 11개소, 작품은 모두 66컷이다.
장소는 전문 촬영 작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 무성서원, 쌍화차거리, 김명관고택 등이다.
구절초지방정원 짙어이어는 감성과 함께 역동성을, 김명관 고택에는 젊은 감성은 물론 저마다 자

신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여백을 담았다.
시는 일본 홋카이도 중부에 있는 히가시카와의 사례를 참고했다. 히가시카와는 1만 2000명이던 인구가 7000명으로 줄었다.
특별한 대책을 찾던 주민들은 사진의 마을로 선언, 전국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7000명을 밀돌던 히가시카와 인구는 2016년 8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1월 기준 정착 인구는 8588명까지 늘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 고유의 명소와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며 “특히 마음에 들면 거리와 비용에 상관없이 여행자를 찾아 나서는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가 단순한 사진이 아닌 관광객을 움직이게 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읍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구절초 지방정원 모습. <정읍시 제공>

남원시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브랜딩 사업' 행안부 장관상

지역특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특성화 사업 공유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평가에는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등 2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남원시는 이중 지역특성 살리기 분야의 공모 선정 전국 37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가 뽑힌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방치된 농업 폐장과 리모델링을 통한 발효 테마 마을 카페 조성을 추진했던 시는 노년층이 즐거운 농촌문제 극복 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상은 남원시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2025년에도 여러 공모사업 발굴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5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역 특성화 사업 공유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받은 남원시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정읍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



총괄단장을 맡은 손영국 건설과장을 비롯한 설계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숙원사업 등 조기발주·신속 집행

정읍시가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2월14일까지 운영되는 설계단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발주와 신속 집행을 목표로 한다.
시설직 공무원 21명 4개조로 구성된 설계단의 총괄단장은 시 건설과장이 맡았다.

설계단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20억원 규모 1400여 건의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대상사업의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치고 운영 기한 내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단 운영을 통해 용역비 2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시설직 공무원 간 설계기술 전수 및 업무연찬 등으로 세내기 공무원들의 업무역량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호우·폭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32억7000만원 지급

벼멸구 피해 등 총 2008 농가

고창군이 지난 9월 호우로 인한 벼 쓰러짐을 비롯해 벼멸구와 폭염에 따른 인삼 피해농가 등 총 2008농가에 32억7000만원의 농업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고창군의 벼멸구 및 벼도복 피해의 면적은 1711ha, 군 전체 벼 재배면적 1만1094ha의 16%였다.
특히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가 중첩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후 올해 벼멸구 피해가 사상 첫 농업재해로 인

정됐고 10월8일~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 1475ha에 군비 2억7000만원을 포함, 총 16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삼농가의 폭염 피해가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고창지역 인삼재배 204농가에 16억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고창군은 전체면적의 40.4%가 농경지이며 인구의 38.3%가 농업인인 전형적인 농군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

비지원을 확대했고 농가 자부담 또한 2022년 20%에서 올해는 10%로 낮춰 농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유도·지원해 왔다.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자부담 비율이다.
이와 함께 사계절 영농이 가능한 시설하우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매년 90억의 예산을 투입해 비가림하우스 신축과 스마트팜 개보수를 지속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해발생시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지원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연말연시 할인 이벤트

15일~1월16일 50% 할인

고창군이 직영하는 선운산 유스호스텔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부대시설 요금을 50% 할인한다.
고창군은 흰눈 소복한 설경이 빼어난 도립공원

선운산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세계유산의 겨울을 경험하는 관광객들과 가족, 친구, 동호회 다양한 모임으로 연말연시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번 특별한 이벤트 예약은 고창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주중 숙박료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